



지난 1월18일 미 에너지부 산하기관 에너지 고등 계획원(ARPA-E) 관계자가 완도군 해조류 양식장을 방문해 양식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완도군 제공>

‘청정바다’ 완도산 해조류, 세계에서 탄소 흡수원 ‘주목’

신우철 군수, NASA서 해조류 탄소 흡수원 인증 등 논의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친환경 해양바이오산업 최적지

완도산 해조류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가 이달 중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찾아 실무진들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을 위해 해조류 신규 블루 카본 인증에 대해 협의하고,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인 에너지 고등 계획원(ARPA-E)과 해조류 양식 기술 및 의

해 조류 양식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김, 미역, 다시마, 툇등 다양한 해조류를 연간 8만t, 전국 대비 50%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다. 지난해에는 총 3천17t의 해조류가 수출됐다. 2021년 NASA에서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 차로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친환경적이라

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NASA의 기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시발점이다. 지난해 4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 기구인 세계자연기금(WWF)에 이어 세계은행(WB), NGO 단체,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곳곳의 해조류 양식 전문가, 종사자들이 완도를 방문했다. 지난 1월에는 ARPA-E에서 한·미 에너지부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인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2025-2029년)’을 위해 사업 대상지인 완도를 찾았다. 완도군은 해조류 주산지답게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도 육성 중이다. 신우철 군수는 “외해 해조류 양식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조류 활용 해양바이오산업 발전과 해조류 탄소 흡수원 지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력 연구소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건립 등을 통해 연구·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 해조류 기반 신소재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외해 해조류 양식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조류 활용 해양바이오산업 발전과 해조류 탄소 흡수원 지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신안군, 겨울철 별미 첫 ‘햇김’ 곱창김 위판

24여t 거래·9천600만원 판매고

신안군이 2025년산 첫 ‘햇김’ 위판을 시작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위판은 압해읍 송공리 물김 위판장에서 이뤄졌으며 11개 어가에서 참여, 24여t 거래, 9천6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올해는 지난 9월 말까지 수온이 24℃ 안팎으로 정체되면서 김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8일 늦게 위판을 시작했다.

이후 11월 초순부터 기온 하강으로 인해 해수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돼 해황 여건이 안정화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첫 생산된 물김은 조생종 품종인 잇바다물김으로 곱창처럼 겹서 구불구불해 일명 ‘곱창김’이라 불리고 있다. 맛과 향은 만생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식감이



최근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물김 위판장에서 열린 물김 경매 입찰 현장에서 종매인들이 입찰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안군 제공>

좋고 풍미가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으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광활한 정정갯벌에서 지주항목을 세우 민물과 썰물을 이용해 김밭을 햇빛에 자동 노출하는 옛 전통방식의 지주식 김을 전국에서 가

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신안군에서 생산된 물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 68% 정도가 해남 및 충남 서천, 전북 부안 등 인근 시·군으로 대량 판매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들의 큰 신뢰를 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인의 입맛

을 사로잡은 ‘검은 황금’ 김은 K-수산물 시장의 새로운 수출품목의 블루칩으로 향후 김양식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아낌없는 김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모든 양식 어가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자

영암서 목재 활용 탄소중립 축제 열린다

9-10일 제1회 전남도 목재누리 페스티벌...한옥문화비엔날레도

영암군이 오는 9-10일 영암목재문화체험장에서 ‘제1회 전남도 목재누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목재 이용-탄소중립’을 구호로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등 목재 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이번 행사는 영암군의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와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페스티벌 첫날인 9일 퓨전국악밴드의 ‘木 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강석구 충남대 교수의 ‘전남형 목재친화도시 육성방안’ 목재문화심포지엄이 열린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사전 접수로 진행되는 ‘우드 그라프티’, ‘우드 버닝 가족사 진만들기’, ‘우드 캠핑’ 등도 예정돼 있다. <영암=나동호기자

디자인 공모전 작품 전시도 열리고, 전 날 8개 지자체의 목재문화체험장 대표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위한 ‘목재놀이 터’와 ‘힐링 쉼터’가 운영되고, 다양한 목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목재를 생활 속 가까이 들이는 체험의 장에서 전통한옥의 문화를 즐기는 비엔날레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페스티벌과 같은 장소에서 8-10일 ‘건축에서 문화로(Build Up Culture)’를 주제로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를 개최한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시,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공론위 권고 전격 수용

문화연대 “전면 재검토해야” 반대 목소리도

목포시가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며 향후 이행 절차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5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출된 공론화위원회의 열린 수장고 건립, 나전칠기 기증품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용역 등 권고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기증품을 활용한 전통 공예 계승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용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먼저, 열린 수장고 조성 관련 작품 보존의 시급성과 재정투입 최소화를 위해 목포 문화도시센터 소재 1층 공간을 활용해 전시와 체험, 보존과 수리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2025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내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목포문화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해 “목포시는 나전칠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즉각 발표하고 박물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대는 “목포시는 공론화위원

회가 권고한 이후 속전속결로 목포시의회에 ‘나전칠기 기증품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용역 수립 예산 1억원을 상정했다”며 “이후 일사천리로 ‘보존과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안했지만 부결됐다”고 꼬집었다.

문화연대는 “이는 목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박물관 건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나전칠기 기증품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명칭을 쓰며 시민들에게 박물관 건립의 거부감을 최소화시켜 추진하려는 계략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목포=정해성기자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소방 추산 피해 금액 500만원 이상...최대 700만원 지급

강진군이 화재 피해 주민들의 일상 생활 복구를 돕기 위해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주

거 시설뿐 아니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 피해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재난 이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됐다. 대상자는 강진군 거주 주민으로, 화재(폭발, 붕괴 등 포함)로 인해 거주지 또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시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다. 지원금은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방서 피해 추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강진=정영록기자

해남군,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당부

해남군은 5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대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므로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이 필수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를 놓치면 기대했던 예방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제 시기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관내 10개소 의료기관에서 토요일에도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7세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을 실시하며 14-18세 청소년도 유료 접종(1만원)이 가능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면역기능이 약한 고위험군,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 건강 강화와 질병 예방을 위해 독감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영광군, ‘세상의 빛’ 소금박람회 성료

내·외국인 21만여명 방문...천일염 시장확대 가능성 확인

영광군은 “최근 사흘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소금박람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 올해 16회 짙을 맞는 소금박람회는 ‘SOLT LIGHT 천일염은 세상의 빛이다’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전남도, 영광군, 신안군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 마련된 소금밭 어린이놀이터, 천일염 웰빙체험존, 천일염 체험작업장, 천일염 카페 등을 내·외국인 약 21만여명이 방문해 직접 체험했으며 영광천일염의 우수성 홍보와 세계시장 관외 확대 등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아이들이 소

풍나온 것처럼 여러가지 소금을 만져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많이 신기해 한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지역축제를 접할 수 있고 지역 특산품도 구매할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영광군 홍보 판매관에 참여한 관내 천일염 생산·가공업체(주)벽수소금과 해양천일염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여로 건강하고 깨끗한 소금 영광천일염 홍보는 물론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영광천일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